

애완전 호사 실화 같지 않은 실화

유치원에서 전용카페까지... 전국에 250만마리

지를 키우며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책임감과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자폐증 어린이, 치매 노인,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애견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시가 잡아들인 떠돌이 개는 2227마리. 이 중 절반이 넘는

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 목줄을 매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개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점점 호사스러워지는 애견문화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도 많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점심은 거르는 청소년들도 아직 많은데, 300~400만원 짜리 애완견을 기르는 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이

"애완동물 정서적 고립감 메워줘"

전문가의견

애완동물 열풍은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를 배경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만큼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친구 같은 존재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과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이 '가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윤인진 교수(고려대 사회학과)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정서적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애완동물 열풍을 설명한 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2~3년 사이 미디어 매체들이 앞다투어 동물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일반인들이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임기동 교수(경북대 수의학과)는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애완동물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심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애견카페 'DOG' (경기도 고양시)를 찾은 사람들이 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임민수 기자

철마다 예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간식을 먹고 생일이면 고깔모자를 쓰고 파티도 연다. '부모'가 출장을 갈 때면 호텔에 묵고 휴가철이면 콘도로 피서를 가기도 한다.

부잣집 자녀가 아니라 '부잣집 애견'들의 이야기다.

애견 250만 마리, 애견산업 1조원의 시대(한국애견협회 추산). 가히 애견열풍이라 할 만하다. 때맞춰 먹을 것을 주고 적당히 운동시켜주는 것으로 그쳤던 애견사랑 또한 애견카페, 패션전 문점, 전문사진관, 장례식장 등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이미 전국에 20여 곳이 넘는 애견카페가 있고 지난 6월에는

강아지 유치원 '프티페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문을 열었다.

사람과 개가 함께 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행처럼 개를 키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3년째 요크셔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김민아(27) 씨는 개를 키우는 첫번째 이유로 '변함없는 사랑'을 든다.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사실 사람들에게선 말 한마디로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는 언제나 변치 않는 애정과 충성심을 보여주거든요."

동물을 키움으로써 성격이 밝아지고, 애견의 끼니를 챙겨주고 목욕을 시켜주면서 책임감이 생기기도 한다. 대학생 안현주(24)씨는 "13개월 된 강아

고깔모자 쓰고 생일파티·휴가는 콘도서 시장규모 연 1조원 추정...유망사업 평가

늙고 병들면 '성가시다' 주인들 길에 버려 "새로운 문화현상" "문제점 많다" 팽팽

1293마리가 굶주림, 질병 등으로 죽거나 수용시설 부족으로 안락사 당했다. 떠돌이 개의 대부분은 늙고 병들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위치 다꺼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 받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 없이 아이들의 성화로 혹은 미디어에서 비취지는 화려하고 귀여운 모습에 끌려 충동적으로 개를 구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불편도 만만치 않다. 음식점에 개를 데리고 가 불쾌감을 주거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에 개의 배설물을 방치해 위생문제

바로 그것이다. 애견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영지 씨는 "누가 더 비싼 개를 기르고 있고, 얼마나 멋지게 꾸미는 지로 자신의 신분이나 취향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인간소외를 낳는다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국애견협회 최지용 기획이사는 "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집안

현상만으로 볼 때 가족화한 개 키우기는 이제 일종의 문화현상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작용 또한 크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애견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 '애견 문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인 문화인이지도 모르겠다.

〈불교와개〉 부처님의 10대 제자중 신통제자인 목련존자는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부처님께 간청해 구해내지만, 어머니는 무거운 업장으로 개로 환생하게 된다. 목련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천월 보름날 우란 본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가에서는 출 재가를 막론하고 개 고기를 먹는 일을 금기시 한다.

여수경 기자 snooky@buddhania.com

영화 뽀빠 최근 애견문화 단면 그려

〈뽀빠〉는 최근의 애견 문화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뽀빠〉는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 뽀빠가 죽자 애완견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수현(백현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강아지들을 기르는 여러 사람들의 인연이 펼쳐진다.

한 비구니 스님 불교방송에서 차 한잔의 '선'을 진행하는 진영 스님이 연기했다. 은 마당에서 키우는 진돗개 '자비'가 수행자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식 욕구를 원천

적으로 차단한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애견센터에서 산 미니어처 슈나이저가 한 달 동안 병치레만 하다가 죽어버리자 보상을 해 달라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이렇듯 영화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영화 〈뽀빠〉를 만든 김지현(34) 감독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영화학교인 ESEC에서 연출 수업을 받았다. 〈웃음〉, 〈연애에 관하여〉, 〈바다가 육지라면〉 등의 디지털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건강단신

국립대 박경순 교수가 한다. 02)974-2501

유방암 상담센터 개소

서울대병원 유방절제술 후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방암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유방암 전문 외과의, 종양 내과의, 상담전문가, 재활운동 전문가, 환자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방수술 후 회복운동 및 영양관리법,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간호실무교육실 102호에서 진행된다. 02)743-4674

조선족 동포 등 무료 검진

서울시 영등포구 국경없는 의회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구 보건소 1층 건강진료실에서 조선족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02) 2630-0323

대정암치료법 강좌 개최

원자력의학원 대정항문종양외과팀은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에서 대정암치료법 등에 대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늙은호박전

늙은호박 1/4개, 밀가루 1/2컵, 식용유, 소금 약간

1. 늙은호박은 껍질을 닦고 껍질을 벗겨 설탕은 그대로 둔 채 씨만 털어낸다. 설탕은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다른 부위
2. 호박에 물이 생기면 밀가루를 넣어 되직하게 반죽한다. 찜가루나 찜쌀가루를 넣어도 된다. 호박
3.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조금씩 떠놓아 전을 부친다. 호박전은 얇아야 노르스름한 색도 살고 모양도 예쁘다. 부칠 때는 전의 꼬트머리를 누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눌러가며 부쳐야 예쁘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천수경·반야심경 등 어디서나 청취

디지털 불경 롬비니

디지털 불경 롬비니는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계, 금강경, 법성계가 녹음되어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어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 있는 재생기다.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

도로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다. 아이폰 증정. 값 3만5천원.

천수경·반야심경 등 어디서나 청취

디지털 불경 롬비니

디지털 불경 롬비니는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계, 금강경, 법성계가 녹음되어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어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 있는 재생기다.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

도로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다. 아이폰 증정. 값 3만5천원.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曉史塾」 제4기 강의 안내

- ◆ 강의시작 : 2002년 12월 6일(금요일) 오후 5시 부터 매주 4시간씩
- ◆ 등록마감 : 2002년 11월 30일까지
- ◆ 등록비용 : 일백오십만원(카드결제 가능 : 효사육임강의록 교재 포함)
- ◆ 기간 : 3개월 13주 52시간

정통 육임강의 제4기를 모집합니다.

3개월 공부를 마치면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에서 시행하는 「육임고시」를 치른 후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회원으로 영입된 후 정통 육임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육임은,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정단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육임학당 강주 호 사배상

육임학당 광주숙 제2기 • 개강 - 11월 25일 • 전화 : 011)9606-7090

육임학당 대전숙 제2기 • 개강 - 11월 26일 • 전화 : 016)445-4580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 개강 - 11월 27일 • 전화 : 011)729-6011

육임학당 북경숙 제2기 • 개강 - 11월 30일 • 전화 : 02)3446-4118

육임학당 일경숙 제2기 • 개강 - 12월 3일 • 전화 : 02)2203-4805

각지역 강의안내

육임학당 曉史塾 직통 02 - 996 - 3335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육임대정비법 혁신판 수정본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쌌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쌌습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생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혀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식사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곳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인기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시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물어옵니다.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묻는데 기도 치성만 하라고 해서 속 시원한 해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 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 대담해 주어야만 세태 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사법(邪法)이 아니라 아만공고(我慢供高)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 안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부록·비디오 포함) 우편금박표지, 적색오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 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